**막1525 Note**

**◆Cross check : 시2214-16**

시2214. 나는 물과 같이 부어지며, 내 모든 뼈들은 관절에서 벗어나 있나이다,

내 마음은 밀랍(蜜蠟)과 같아서, 그것이 내 내장들 가운데서 녹나이다,

시2215. 내 능력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, 내 혀는 내 턱들에 달라붙나이다,

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사망의 먼지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.

시2216.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음이라, 사악한 자들의 회중이 나를 둘러싸았나이다. 그들이 내 손들과 내 발들을 꿰뚫었나이다.